

이달의 이슈 | 01

서울의 고용 동향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소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 최윤진 연구원 erdene@si.re.kr /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I. 인구 및 취업자 동향

1.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증가

○2016년 1분기 기준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54만 9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533만여 명으로 나타남. 취업자와 실업자는 각각 507만 7천여 명, 25만 3천여 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를 기록

〈표 1〉 서울시 인구현황

(단위: 천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
15세이상인구	8,384	8,399	8,442	8,520	8,519	8,561	8,549
생산가능인구*	7,426	7,400	7,398	7,437	7,384	7,376	7,337
경제활동인구	5,180	5,252	5,258	5,307	5,386	5,362	5,330
경제활동참가율	61.8	62.5	62.3	62.3	63.2	62.6	62.3
취업자	4,936	5,012	5,036	5,097	5,146	5,135	5,077
실업자	244	239	222	210	241	227	253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15~64세의 인구를 집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118만 5천여 명으로 2010년(95만 8천여 명) 이후로 23.7% 증가한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이후 0.7% 감소한 737만 6천여 명

- 2016년 1분기 기준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 854만 9천여 명 중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의 85.8%인 733만 7천여 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전체의 14.2%인 121만 2천여 명
- 향후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

〈표 2〉 서울시 연령별 인구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

	2010년	201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	7,426 (88.6)	7,376 (86.2)
65세 이상 (비중)	958 (11.4)	1,185 (1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기준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0.98명^①이며(전국 1.21명)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10년 1분기 64.6에서 2016년 1분기 107.4로 급격히 상승

2. 고령층 고용은 확대된 반면, 청년층 고용은 축소

- 서울의 2016년 1분기 고용률은 2015년 1분기 대비 0.3%p 낮은 59.4%이고, 실업률은 2015년 1분기보다 0.1%p 높은 4.7%로 나타남
- 2016년 1분기 서울의 취업자 수는 2015년 1분기(510만 2천여 명)보다 0.5% 감소한 507만 7천여 명
- 2016년 1분기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8.5%, 65.2%를 기록

〈표 3〉 서울시 실업률, 고용률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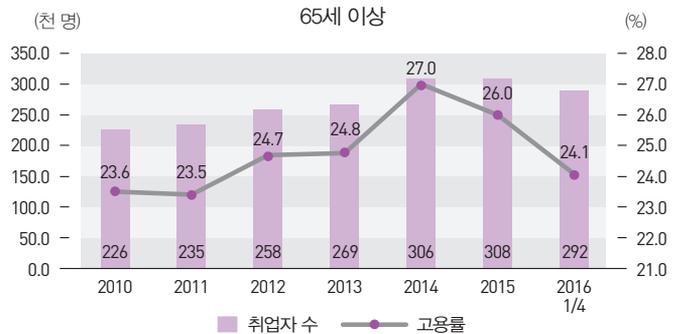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
실업률	4.7	4.6	4.2	4.0	4.5	4.2	4.7
고용률	58.9	59.7	59.7	59.8	60.4	60.0	59.4

^①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15~49세의 기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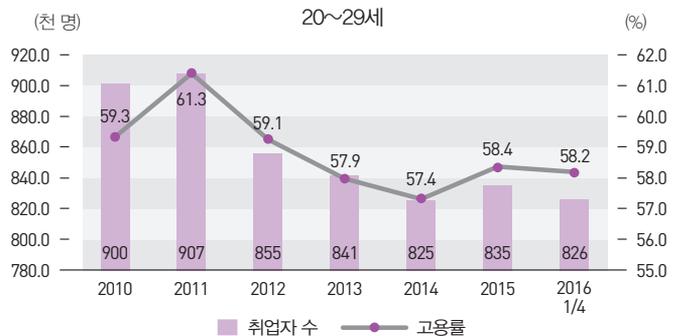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5년 기준 서울의 고령층(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수는 31만 7천여 명으로 5년 전인 2010년보다 34.9%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같은 기간 2.4%p 상승한 26.0%를 기록하여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단, 2016년 1분기에는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수가 30만 1천여 명, 고용률이 24.1%로 나타나 2015년 1분기와 비교하여 경제활동인구 수는 0.7% 감소, 고용률은 0.9%p 감소
- 2016년 1분기 기준 고령층 취업자 수는 작년 1분기 때와 비슷한 29만 2천여 명을 기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 고령층 취업자 수, 고용률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청년층 취업자 수, 고용률 변화 추이

- 서울의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는 2015년 97만여 명으로 2010년 대비 6.0% 줄었고,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은 2010년보다 각각 1.0%p, 0.9%p 증가한 44.6%, 9.3% 기록
- 한편, 2016년 1분기 청년층(15~29세) 고용률과 실업률은 2015년 1분

기보다 각각 0.4%p, 2.0%p 상승한 44.6%, 12.3%, 취업자 수는 2015년 1분기 대비 1.0% 감소한 86만 7천여 명

- 서울의 30~40대 취업자 수는 2016년 1분기 기준 248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9.0% 비중을 차지하여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 집단으로 나타남
- 2015년에 30~40대 취업자 수는 249만여 명으로 2010년(257만 9천여 명) 대비 3.5% 감소하였고, 취업자 비중은 48.5%로 2010년보다 3.8%p 감소

〈표 4〉 서울시 연령대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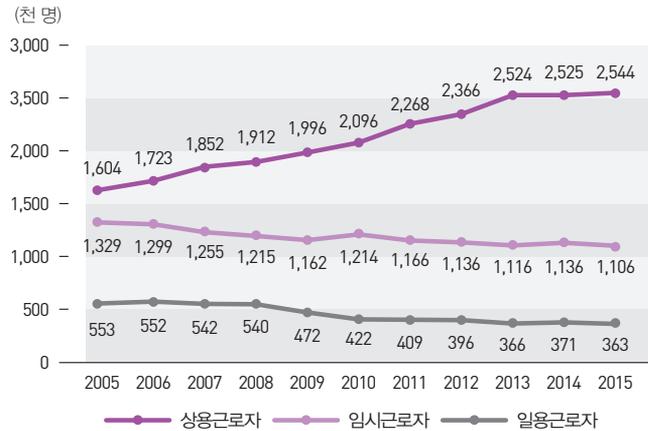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
계	4,936	5,012	5,036	5,097	5,146	5,135	5,077
15~29세	945	958	903	881	872	880	867
20~29세	900	907	855	841	825	835	826
30~39세	1,257	1,250	1,281	1,298	1,283	1,267	1,262
40~49세	1,322	1,323	1,283	1,282	1,253	1,223	1,227
50~59세	967	1,010	1,055	1,092	1,143	1,148	1,122
60세 이상	444	471	513	546	596	618	601
65세 이상	226	235	258	269	306	308	2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상용근로자^②는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감소

^② 상용근로자는 ① 1년 이상 고용 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②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내규에 채용되어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함.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일용직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혹은 일일 단위인 근로자를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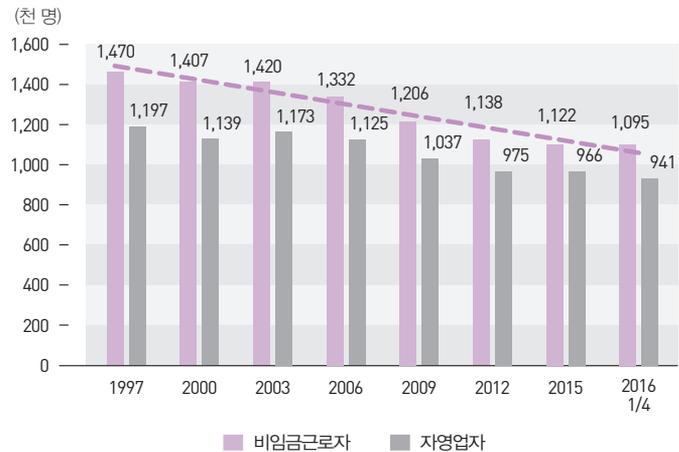
- 서울의 임금근로자는 2010년 373만 3천여 명에서 2015년 401만 3천여 명으로 7.5% 증가함. 한편, 비임금근로자는 같은 기간 120만 3천여 명에서 112만 2천여 명으로 6.7%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10년 209만 6천여 명에서 2015년 254만 4천여 명으로 21.4% 증가한 반면, 일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는 같은 기간 각각 8.9%, 14.0%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102만 5천여 명에서 96만 6천여 명으로 5.8% 감소
- 2016년 1분기 기준 임금근로자는 2015년 1분기보다 0.1% 늘어난 398만 3천여 명
- 2016년 1분기 기준 서울의 상용근로자는 2015년 1분기 대비 4.4% 늘어난 260만여 명, 임시근로자는 106만 1천여 명(-4.3%), 일용근로자는 32만 1천여 명(-15.7%)을 기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2010년 120만 3천여 명에서 2015년 112만 2천여 명으로 6.7% 감소
- 2016년 1분기 기준 서울의 비임금근로자는 2015년 1분기보다 2.4% 줄어든 109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6%를 차지함.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2015년 1분기 대비 2만 8천여 명(-2.9%) 감소한 94만 1천여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서울시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추이

II. 산업별 종사자 동향^③

- 2014년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④은 314조 1,601억 원으로 전년(307조 2,550억 원) 대비 2.2% 증가
- 각 산업이 서울의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업(17.1%), 금융 및 보험업(12.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1.8%), 부동산업 및 임대업(1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9.8%), 제조업(5.6%) 순으로 나타남

〈표 5〉 서울시 주요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억 원 %)

	2013년	2014년 (잠정치)	GRDP 성장률 (전년 대비)	GRDP 성장률 (5년전 대비)	GRDP 비중 (2014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	3,072,550	3,141,601	2.2	11.7	100
제조업	170,999	175,374	2.6	20.0	5.6
건설업	70,829	74,909	5.8	-10.9	2.4
도매 및 소매업	521,680	536,111	2.8	29.5	17.1
운수업	89,333	90,596	1.4	13.0	2.9
숙박 및 음식점업	84,577	85,784	1.4	-1.8	2.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8,561	308,690	0.0	18.0	9.8
금융 및 보험업	362,274	378,940	4.6	14.8	1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0,220	315,277	1.6	4.9	1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69,869	371,964	0.6	5.1	11.8
교육서비스업	135,149	134,705	-0.3	-2.3	4.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0,327	127,823	6.2	23.2	4.1

^③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을 고려하여 분석의 실익이 있는 산업만을 선별적으로 분석

^④ 이 절에서 사용한 GRDP 통계는 2010년을 기준연도 가격(연쇄)으로 하며 생산지수 역시 2010년 (=100)을 기준으로 한 불변지수 값으로 함. 또한, 「전국사업체조사」와 같이 2016년 현 시점에 2014년 이후 통계치가 집계되지 않은 조사는 자료의 시계열 범위를 2014년으로 제한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 2014년 기준 서울시 전체 산업별 종사자 수는 474만여 명으로 전년 (458만 5천여 명) 대비 13.5% 증가했고, 서울에 소재한 사업체 수는 81만 3천여 개로 전년(78만 5천여 개)보다 3.5% 증가

〈표 6〉 서울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추이

(단위: 개,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체 수	723,086	729,731	752,285	780,887	785,094	812,798
종사자 수	4,177,336	4,487,357	4,498,312	4,541,393	4,585,090	4,739,88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2014년 기준 서울의 산업별 종사자 수는 도·소매업이 1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은 숙박 및 음식점업(9.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9%) 순임

〈표 7〉 서울시 주요 산업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

	2013년	2014년	증감률 (전년 대비)	비중 (2014년 기준)
전 산업	4,585,090	4,739,883	3.4	100
제조업	272,972	283,523	3.9	6.0
건설업	286,131	283,226	-1.0	6.0
도매 및 소매업	826,015	859,536	4.1	18.1
운수업	256,611	260,415	1.5	5.5
숙박 및 음식점업	443,079	462,721	4.4	9.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4,316	328,519	4.5	6.9
금융 및 보험업	257,803	257,413	-0.2	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9,538	154,768	10.9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99,412	422,525	5.8	8.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60,854	378,699	4.9	8.0
교육 서비스업	313,846	318,984	1.6	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0,428	298,024	6.3	6.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전통적으로 산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부문의 종사자 수가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늘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의 종사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도·소매업 종사자 수는 2013년 82만 6천여 명에서 2만 4천여 명(4.1%)이 늘어난 86만여 명을 기록함, 2014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사자 수는 15만 5천여 명으로 전년(14만여 명) 대비 10.9% 증가

1. 도·소매업 부문은 서울에서 GRDP와 종사자 비중 최대

- 서울은 전체 산업 중에서 도·소매업 부문이 GRDP와 산업별 종사자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4년 서울의 도·소매업 GRDP는 53조 6,111억 원으로 전년(52조 1,680억 원) 대비 2.8% 증가함. 전체 GRDP에서 도·소매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전년보다 0.1%p 증가
- 2014년 서울의 도·소매업 부문 매출액은 370조 2,609억 원으로 전년(371조 3,783억 원)보다 0.3% 감소했고, 도·소매업의 연간 급여액은 17조 1,623억 원으로 전년(17조 227억 원) 대비 0.8% 증가

- 2014년 서울의 도·소매업 부문 종사자 수는 86만여 명으로 전년(82만 6천여 명)보다 4.1%(2만 4천여 명) 증가함. 전체 종사자 중 도·소매업 부문 종사자의 비중은 18.1%로 전년 대비 0.1%p 증가
- 2014년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23만 3천여 개로 전년(22만 7천여 개) 대비 2.9% 증가함. 도·소매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13년 3.6명에서 2014년 3.7명으로 0.1명 증가

2.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 GRDP 비중은 낮지만 종사자 비중은 높아

- 2014년 서울의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 GRDP는 서울시 전체 GRDP의 2.7%로 산업 내 비중이 미미하지만 종사자 수는 도·소매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
- 2014년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 종사자 수는 46만 3천여 명으로 서울시 전체 산업별 종사자의 9.8%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44만 3천여 명)보다 4.4% 증가
- 2014년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 사업체 수는 12만 7천여 개로 전년(12만 4천여 개) 대비 4.4% 증가했으며,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전년보다 0.1명 늘어난 3.7명을 기록

〈표 8〉 서울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개, 명)

산업별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도· 소매업	GRDP	451,271	481,500	500,573	521,680	536,111	2.8
	사업체 수	209,989	215,874	225,830	226,629	233,196	2.9
	종사자 수	783,503	786,971	800,698	826,015	859,536	4.1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04.9	104.9	104.5	104.3	-0.2
숙박 및 음식점업	GRDP	90,183	86,059	84,943	84,577	85,784	1.4
	사업체 수	115,415	119,320	122,439	123,634	126,557	2.4
	종사자 수	405,068	417,162	431,554	443,079	462,721	4.4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99.8	98.5	99.3	99.4	0.1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하 사업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다음으로 종사자 수가 많고, 각 부문은 전체 산업별 종사자의 8.9%, 8.0% 비중을 기록
 - 2014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 수는 42만 3천여 명으로 전년(40만여 명)보다 5.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업체 수는 3만 4천여 개에서 3만 8천여 개로 11.8% 증가
 - 2014년 사업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 수는 37만 9천여 명으로 전년(36만 1천여 명)보다 4.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업체 수는 1만 2천여 개에서 1만 4천여 개로 10.2% 증가
- 사업 서비스업 부문의 GRDP 규모는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사업 서비스업 부문의 GRDP 규모는 2013년 36조 9,869억 원에서 2014년 37만 1,964억 원으로 0.6% 증가했으며, GRDP 비중은 11.8%로 전년 대비 0.2%p 감소
 - 2014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 서비스업과 부문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각각 103.4, 121.3으로 전년보다 각각 0.2%, 2.2% 증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 서비스업 부문은 사업체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또한 서울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 서비스업 부문의 종

사자 비중이 다른 시·도들보다 높게 나타남(전국은 각각 4.9%, 4.7% 비중 기록)

(표 9) 서울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개, 명)

산업별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GRDP	-	-	-	-	-	-
	사업체 수	26,414	29,044	32,515	33,624	37,599	11.8
	종사자 수	367,240	389,581	395,283	399,412	422,525	5.8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98.8	101.3	103.2	103.4	0.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GRDP	356,376	362,460	358,180	369,869	371,964	0.6
	사업체 수	10,033	11,277	12,423	12,495	13,764	10.2
	종사자 수	349,156	324,573	342,891	360,854	378,699	4.9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10.1	116.3	118.7	121.3	2.2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지역소득통계조사 경제활동별 분류에 없음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건설경기 동향조사」

4. 금융업 및 보험업 · 건설업 부문은 GRDP 규모 대비 고용효과 낮아

- 금융 및 보험업 부문 GRDP는 서울시 전체 GRDP의 12.1%로 도· 소매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종사자 수는 산업별 종사자의 5.4%에 불과해 높은 GRDP 규모에 비해 종사자 비중이 적은 편
 - 2014년 금융 및 보험업 부문 GRDP는 전년(36조 2,274억 원)보다 4.6% 증가한 37조 8,940억 원을 기록했지만, 종사자 수는 전년(25만 8천여 명)보다 소폭 감소(-0.2%)한 25만 7천여 명을 기록
 - 금융 및 보험업 부문 사업체 수는 2013년 1만여 개에서 2014년 1만 1천여 개로 4.3% 증가함. 금융 및 보험업 부문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114.1로 전년보다 4.4% 상승해 금융 및 보험업 부문의 산업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분석
- 건설업 부문도 금융 및 보험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산업성과가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4년 건설업 부문 GRDP(7조 4,909억 원)는 전년 대비 5.8% 증가하고, 사업체 수(2만 2천여 개)와 건설 수주액(12조 687억 원)은 각각 전년 대비 4.9%, 11.9% 증가한 반면, 종사자 수(28만 3천여 명)는 전년보다 1.0% 줄었으며 2011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임

〈표 10〉 서울시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개, 명)

산업별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금융 및 보험업	GRDP	329,427	338,030	357,219	362,274	378,940	4.6
	사업체 수	9,581	9,942	10,293	10,165	10,600	4.3
	종사자 수	270,541	267,602	261,894	257,803	257,413	-0.2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08.4	111.2	109.3	114.1	4.4
건설업	GRDP	79,689	73,223	68,616	70,829	74,909	5.8
	사업체 수	19,077	20,156	20,767	21,027	22,049	4.9
	종사자 수	381,531	359,900	309,602	286,131	283,226	-1.0
	건설 수주액	175,870	144,801	99,806	107,881	120,687	11.9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건설경기 동향조사」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문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 확대

- 2014년 서울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 GRDP(12조 7,823억 원)는 전년(12조 327억 원)보다 6.2% 늘어나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빠른 GRDP 성장률을 기록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은 서울시 전체 GRDP의 4.1%를 차지해 산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GRDP 성장률은 6.2%로 산업 규모가 가장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매출액은 2013년 24조 1,308억 원에서 2014년 25조 5,745억 원으로 6.0% 증가했으며,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
- 2014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 수는 29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부동산업 및 임대업(10.9%) 다음으로 종사자 증가율이 높았으며, 전체 종사자의 6.3%를 차지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사업체 수는 2만 6천여 개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고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에 주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 2014년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2만 3천여 개, 32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7.8%, 4.5% 증가했고, 서울 전체 산업에서 2.8%, 6.9%를 차지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문 GRDP는 30조 8,690억 원

으로 서울시 전체 GRDP의 9.8%를 차지하며, 매출액⁵은 57조 8,846억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

〈표 11〉 서울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주요 지표추이
(단위: 억 원, 개, 명)

산업별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GRDP	109,188	112,619	117,738	120,327	127,823	6.2
	사업체 수	22,042	23,275	24,231	24,984	26,224	5.0
	종사자 수	240,221	249,466	264,241	280,428	298,024	6.3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05.5	112.1	115.7	124.0	7.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GRDP	270,256	289,371	303,568	308,561	308,690	0.0
	사업체 수	13,690	16,175	18,597	19,240	22,663	17.8
	종사자 수	295,581	302,726	307,787	314,316	328,519	4.5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05.9	111.3	115.2	116.8	1.4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종사자 급증, 교육 서비스업 부문은 저조

○2014년 서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3.3%로 GRDP 규모 대비 종사자 비중은 작지만 지난 1년간 종사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GRDP는 31조 5,277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GRDP의 10.0%를 차지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의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는 각각 15만 5천여 명, 3만 7천여 개로 전년 대비 10.9%, 5.8% 증가
- 주택거래건수가 2013년 15만여 건에서 2014년 20만여 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매출액과 연간급여액은 각각 18조 4,439억 원, 2조 7,624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7.8% 증가함. 특히,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은 지난 1년간 연간급여액이 급증

○높은 교육열로 교육 서비스업 부문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

- 교육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는 각각 31만 9천여 명, 3만 3천여 개로 전년 대비 1.6%, 3.3% 증가했으며, 교육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는 전체 산업별 종사자의 6.7% 비중을 기록
- 교육 서비스업 부문 GRDP는 2010년 이후 매년 줄고 있으며, 2013년 13조 5,149억 원에서 2014년 13조 4,705억 원으로 0.3% 감소

⁵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는 통신업 부문을 제외한 통계(매출액, 연간급여액 등)를 제공함

〈표 12〉 서울시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개, 명)

산업별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부동산업 및 임대업	GRDP	305,223	312,031	309,214	310,220	315,277	1.6
	사업체 수	35,100	35,207	35,214	34,629	36,648	5.8
	종사자 수	142,505	144,271	141,124	139,538	154,768	10.9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08.8	106.6	112.9	120.8	7.0
교육 서비스업	GRDP	139,887	137,605	135,979	135,149	134,705	-0.3
	사업체 수	30,044	31,181	31,810	32,240	33,288	3.3
	종사자 수	297,208	299,858	310,880	313,846	318,984	1.6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01.4	101.3	102.9	105.2	-1.8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지역소득통계」, 「서비스업 동향조사」

Ⅲ. 산업별 노동 수요와 임금 동향

1.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서울의 채용인원 수는 구인인원 수에 비해 증가세가 빠름

- 2015년 구인인원은 19만 8천 명으로 5년 전인 2010년에 비해 33.6% 증가했으며, 채용인원은 12만 7천 명에서 17만 6천 명으로 39.2% 늘어 채용인원이 구인인원보다 증가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은 5년 전 대비 증가했으나, 전년보다 감소

- 2014년에 비해 구인인원은 3.8%, 채용인원은 4.1% 감소하여 전년 대비 노동 수요와 공급의 규모 축소
- 또한 2015년 채용률은 89.2%로 2014년 89.5%에 비해 0.3%p 하락하여 전년 대비 인력공급 상황 악화

〈표 13〉 서울시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추이

(단위 :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5년 전 대비)
구인인원	147,983	181,122	170,133	169,398	205,572	197,726	33.6
전년대비 증감	15.0	22.4	-6.1	-0.4	21.4	-3.8	
채용인원	126,773	150,178	149,599	151,045	183,935	176,405	39.2
전년대비 증감	3.0	18.5	-0.4	1.0	21.8	-4.1	
채용률	85.7	82.9	87.9	89.2	89.5	89.2	3.5%p

⑥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⑥

2. 건설업의 구인인원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

- 서울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구인인원 수가 4만 7천 명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서울 산업별 구인인원 비중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3.7%), 교육 서비스업(11.0%), 도매 및 소매업(9.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3%) 순으로 높음
- 서울에서 건설업의 구인인원 수가 전년 대비(-40.1%) 가장 크게 감소
 - 구인인원이 전년 대비 전 산업 평균 증감률(-3.8%)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부문은 건설업(-40.1%), 금융 및 보험업(-31.6%), 부동산업 및 임대업(-29.4%), 도매 및 소매업(-14.9%), 숙박 및 음식점업(-9.3%)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1%), 운수업(5.1%) 등은 전년보다 증가하여 노동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

〈표 14〉 서울시 주요 산업별 구인인원 추이

(단위 : 명, %)

	2010년 (5년 전)	2014년 (전년)	2015년	구인인원 증감률 (5년 전 대비)	구인인원 증감률 (전년 대비)	구인인원 비중 (2015년 기준)
전 산업	147,983	205,572	197,726	33.6	-3.8	100.0
제조업	9,327	8,245	8,008	-14.1	-2.9	4.1
건설업	12,867	25,162	15,069	17.1	-40.1	7.6
도매 및 소매업	16,250	22,173	18,876	16.2	-14.9	9.5
운수업	7,980	13,597	14,286	79.0	5.1	7.2
숙박 및 음식점업	16,600	15,859	14,382	-13.4	-9.3	7.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495	13,353	13,301	-1.4	-0.4	6.7
금융 및 보험업	6,065	7,385	5,049	-16.8	-31.6	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3,608	4,436	3,134	-13.1	-29.4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300	15,843	16,320	58.4	3.0	8.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8,813	42,566	46,820	62.5	10.0	23.7
교육 서비스업	11,705	21,197	21,655	85.0	2.2	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794	9,878	10,480	80.9	6.1	5.3

주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대부분 채용되어 적합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2015년 서울에서 전년 대비 채용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장 크게 감소한 부문은 건설업
- 서울에서 전년 대비 채용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8%) 순
- 채용인원이 가장 크게 감소한 부문은 건설업(-39.7%), 금융 및 보험업(-31.0%), 부동산업 및 임대업(-25.9%) 순

〈표 15〉 서울시 주요 산업별 채용인원 및 채용률 추이

(단위 : 명, %, %p)

	2014년		2015년		채용인원 증감률 (전년 대비)	채용률 증감 (전년 대비)
	채용인원	채용률	채용인원	채용률		
전 산업	183,935	89.5	176,405	89.2	-4.1	-0.3
제조업	7,630	92.5	7,586	94.7	-0.6	2.2
건설업	24,126	95.9	14,557	96.6	-39.7	0.7
도매 및 소매업	19,250	86.8	17,101	90.6	-11.2	3.8
운수업	7,828	57.6	8,001	56.0	2.2	-1.6
숙박 및 음식점업	13,401	84.5	11,298	78.6	-15.7	-5.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480	86.0	11,307	85.0	-1.5	-1.0
금융 및 보험업	6,992	94.7	4,827	95.6	-31.0	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4,086	92.1	3,027	96.6	-25.9	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808	93.5	14,961	91.7	1.0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9,367	92.5	42,829	91.5	8.8	-1.0
교육 서비스업	20,534	96.9	20,904	96.5	1.8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166	92.8	10,205	97.4	11.3	4.6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15년 서울의 채용률⁷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7.4%, 부동산업 및 임대업 96.6%, 건설업 9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구인인원, 채용인원, 채용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여 노동수요가 증가함과 더불어, 그에 적합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그다음으로 채용률이 높게 나타난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건설업은 구인인원(각각 -29.4%, -40.1%)과 채용인원(각각 -25.9%, -39.7%)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수와 노동공급이 비슷한 비율로 감소

⁷
채용률=채용인원/
구인인원*100

4. 운수업의 미충원율^⑧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동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2015년 서울의 미충원인원은 2만 1천 명이며 미충원율은 10.8%로 전년 대비 0.3%p 증가
- 2015년 미충원율이 서울 전 산업 평균(10.8%)보다 높은 부문은 운수업(44.0%), 숙박 및 음식점업(2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5.0%)
- 미충원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부문은 숙박 및 음식점업(5.9%p),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8%p), 운수업(1.6%p) 순
- 2015년 서울 산업별 미충원인원과 미충원율은 모두 운수업이 각각 6천 3백 명,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미충원율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은 숙박 및 음식점업(5.9%p)으로 미충원인원도 25.5% 증가하여 노동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
- 운수업은 전년보다 구인인원이 5.1% 증가하여 노동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미충원율이 42.4%에서 44.0%로 1.6%p 증가하여 적합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시사

〈표 16〉 서울시 주요 산업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추이

(단위 : 명, % , %p)

	2014년		2015년		미충원인원 증감률 (전년 대비)	미충원율 증감 (전년 대비)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전 산업	21,637	10.5	21,321	10.8	-1.5	0.3
제조업	615	7.5	422	5.3	-31.4	-2.2
건설업	1,036	4.1	512	3.4	-50.6	-0.7
도매 및 소매업	2,923	13.2	1,775	9.4	-39.3	-3.8
운수업	5,769	42.4	6,285	44.0	8.9	1.6
숙박 및 음식점업	2,458	15.5	3,084	21.4	25.5	5.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73	14.0	1,994	15.0	6.5	1.0
금융 및 보험업	393	5.3	222	4.4	-43.5	-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0	7.9	107	3.4	-69.4	-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35	6.5	1,359	8.3	31.3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199	7.5	3,991	8.5	24.8	1.0
교육 서비스업	663	3.1	751	3.5	13.3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12	7.2	275	2.6	-61.4	-4.6

^⑧ 미충원율=미충원인원/
구인인원*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5. 서울 월급여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특별 급여액은 감소

- 2015년 서울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⁹총액은 32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
- 월급여액은 326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하였으나 최근 2년간 증가율이 둔화 추세를 보임
- 특별급여¹⁰는 4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417원(5.6%) 감소했으며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표 17〉 서울시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단위 : 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전 대비 증감
월급여	2,774,256	2,921,496	3,007,110	3,168,798	3,199,814	3,261,561	17.6
전년 대비 증감	5.7	5.3	2.9	5.4	1.0	1.9	
정액 급여	2,686,340	2,846,851	2,938,614	3,092,925	3,114,382	3,169,585	18.0
초과 급여	87,916	74,645	68,496	75,872	85,432	91,976	4.6
특별급여	528,692	493,464	482,663	478,051	472,861	446,444	-15.6
전년 대비 증감	5.9	-6.7	-2.2	-1.0	-1.1	-5.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6. 금융 및 보험업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많아

- 2015년 서울의 산업 중 금융 및 보험업의 월급여액이 438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음
- 월평균 임금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438만 5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15만 2천 원, 건설업 381만 1천 원 순
- 특별급여도 금융 및 보험업이 154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전년 대비 0.9% 증가

⁹ 월급여액: 정액급여 + 초과급여

¹⁰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이며 연간 특별급여를 12로 나눈 월평균 금액

- 2015년 서울의 산업 중 전년 대비 월급여액과 특별 급여액 상승률이 가장 큰 부문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각각 8.5%, 95.4%)
- 금융 및 보험업(0.0%), 교육서비스업(0.2%),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0.4%)의 전년 대비 월급여액 증가율은 서울의 전 산업 평균 증가율(1.9%)보다 낮았으나, 임금 금액은 여전히 전 산업 중 많은 편

〈표 18〉 서울시 주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

(단위 : 원, %)

	2014년		2015년		월급여액 증감률 (전년 대비)	특별급여 증감률 (전년 대비)
	상용 월급여액	상용 특별급여	상용 월급여액	상용 특별급여		
전 산업	3,199,814	472,861	3,261,561	446,444	1.9	-5.6
제조업	2,960,599	178,215	3,098,785	125,789	4.7	-29.4
건설업	3,541,547	347,777	3,810,645	205,750	7.6	-40.8
도매 및 소매업	3,166,624	574,561	3,236,703	493,561	2.2	-14.1
운수업	3,005,809	771,084	3,066,075	870,465	2.0	12.9
숙박 및 음식점업	2,050,074	133,871	2,162,060	101,150	5.5	-24.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59,187	447,030	3,644,241	389,898	2.4	-12.8
금융 및 보험업	4,384,537	1,531,482	4,384,574	1,544,886	0.0	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17,066	125,276	2,559,126	163,687	1.7	3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136,925	445,151	4,151,579	395,188	0.4	-1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96,032	83,954	1,948,709	164,061	8.5	95.4
교육 서비스업	3,524,248	226,807	3,532,674	172,410	0.2	-2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70,498	514,207	2,777,285	477,565	4.0	-7.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7.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는 운수업

○ 2015년 서울 전 산업 평균 근로시간은 180.0시간(주당 평균 45.0시간)이며 시간당 임금은 평균 1만 8천 원

-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0.6%, 시간당 임금은 전년보다 1.3% 증가하여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시간당 임금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서울에서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200.4시간(주당 평균 50.1시간)이며 전년 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근로시간이 3.5%로 가장 크게 증가

-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200.4시간(주당 평균 50.1시간),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2.0시간(주당 평균 48.0시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6.9시간(주당 평균 46.7시간) 순
- 근로시간이 전년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3.0%), 교육 서비스업(0.9%) 순

8. 근로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 2015년 서울에서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부문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2만 5천 원이며 전년 대비 시간당 임금은 건설업이 6.5%로 가장 크게 증가
 -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2만 5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만 4천 원, 건설업 2만 1천 원,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만 1천 원, 교육 서비스업 2만 원 순
 - 시간당 임금이 전년보다 가장 많이 오른 부문은 건설업(6.5%), 숙박 및 음식점업(6.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4%) 순
 -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시간당 임금(각각 1만 1천 원, 1만 3천 원, 1만 원)이 서울 평균(1만 8천 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긴 업무시간에 대한 보상이 크지 않음을 시사
 -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지만 임금은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준

〈표 19〉 서울시 주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

(단위: 시간, 원, %)

	2014년		2015년		근로시간 증감률 (전년 대비)	시간당임금 증감률 (전년 대비)
	총 근로 시간	시간당 임금	총 근로 시간	시간당 임금		
전 산업	178.9	17,886.0	180.0	18,119.8	0.6	1.3
제조업	181.0	16,356.9	182.2	17,007.6	0.7	4.0
건설업	178.4	19,851.7	180.3	21,135.0	1.1	6.5
도매 및 소매업	180.3	17,563.1	180.1	17,971.7	-0.1	2.3
운수업	179.9	16,708.2	179.6	17,071.7	-0.2	2.2
숙박 및 음식점업	202.4	10,128.8	200.4	10,788.7	-1.0	6.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5.9	20,234.2	177.3	20,554.1	0.8	1.6
금융 및 보험업	174.5	25,126.3	173.8	25,227.7	-0.4	0.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4	13,150.8	192.0	13,328.8	0.3	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5.3	23,599.1	173.6	23,914.6	-1.0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1.5	9,895.5	186.9	10,426.5	3.0	5.4
교육 서비스업	173.0	20,371.4	174.5	20,244.6	0.9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3.2	15,418.6	179.2	15,498.2	3.5	0.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IV. 특집: 서울의 청년고용¹¹

1. 서울의 청년취업자는 대부분 임금근로자이며, 그중 상용직이 약 80%

- 서울의 청년취업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고, 대부분 임금근로자
- 서울의 청년취업자는 성별로 남성(55.8%)이 여성(44.2%)보다 많음
- 서울의 청년취업자는 종사상지위별로 임금근로자(94.1%)가 대부분이며, 전국의 청년 임금근로자(92.3%)보다 비중이 더 높음
- 그중 상용직이 79.3%, 임시직이 13.5%, 일용직이 1.3%를 차지
- 서울의 청년 비임금근로자는 5.9%로 전국(7.8%)보다 1.9%p 낮았으며, 그중 자영업자 3.5%, 고용주 2.3%, 무급가족종사자 0.1%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0〉 전국, 서울 청년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

	전국			서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임금근로자	91.8	93.0	92.3	93.8	94.4	94.1
상용직	81.4	80.8	81.1	80.6	77.5	79.3
임시직	9.0	11.0	9.9	11.7	15.7	13.5
일용직	1.4	1.2	1.3	1.5	1.1	1.3
비임금근로자	8.2	7.0	7.8	6.2	5.6	5.9
고용주	3.4	1.9	2.8	2.7	1.9	2.3
자영업자	4.3	4.0	4.2	3.3	3.7	3.5
무급가족종사자	0.5	1.1	0.8	0.2	0.0	0.1

¹¹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원데이터를 가공하여 분석한 것으로 2014년 8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만 22~36세 대상(앞의 청년 기준과 다름)으로 한 설문조사이며, 서울 청년취업자 표본 수 907명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 서울 청년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대졸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청년취업자의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53.4%), 전문대졸(27.9%), 고졸(18.6%) 순

- 서울 청년취업자의 대출 이상 비중은 53.4%로 전국(49.9%)보다 크고, 전문대출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자 청년취업자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표 21〉 전국, 서울 청년취업자의 성별, 학력별 분포

(단위: %)

		전국			서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성별		56.6	43.4	100.0	55.8	44.2	100.0
학력별	고졸	25.7	16.4	21.7	19.1	18.0	18.6
	전문대출	26.0	31.6	28.4	24.0	32.9	27.9
	대출 이상	48.3	52.0	49.9	56.8	49.1	53.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 서울에서 청년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며, 남성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인 반면,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

- 서울의 청년취업자 대부분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에서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14.2%), 제조업(13.8%), 출판·영상·정보(9.9%), 보건 및 사회복지(8.5%), 전문·과학·기술(8.4%) 순
- 서울 청년취업자가 2순위로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제조업(13.8%)으로 나타났지만, 전국(21.8%)에 비해 비중이 현저히 낮음
- 서울에서 남성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인 반면,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
- 서울의 남성 청년취업자는 제조업(18.1%), 도매 및 소매(14.9%), 출판·영상·정보(12.1%)순으로 많은 반면, 여성 취업자는 보건 및 사회복지(14.7%), 교육서비스(14.6%), 도매 및 소매(13.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도 동일한 순서
- 남성 청년취업자가 여성보다 월등히 많은 산업은 부동산·임대(82.3%), 건설업(77.4%), 제조업(73.0%)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여성 청년취업자가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산업은 교육서비스(81.3%), 보건 및 사회복지(76.5%)로 분석됨

〈표 22〉 전국, 서울 청년취업자의 성별, 산업별 비중

(단위: %)

	전국					서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 산업	성별	전 산업	성별	전 산업	전 산업	성별	전 산업	성별	전 산업
제조업	29.2	75.6	12.3	24.4	21.8	18.1	73.0	8.5	27.0	13.8
건설업	5.7	80.9	1.8	19.1	4.0	5.9	77.4	2.2	22.6	4.3
운수업	3.2	71.5	1.7	28.5	2.5	3.5	64.3	2.4	35.7	3.0
출판,영상, 정보	7.5	69.4	4.3	30.6	6.1	12.1	68.5	7.0	31.5	9.9
금융, 보험	3.9	47.7	5.6	52.3	4.7	6.6	57.3	6.2	42.7	6.4
도매 및 소매	14.1	59.5	12.5	40.5	13.4	14.9	58.4	13.4	41.6	14.2
숙박 및 음식점업	4.7	56.3	4.8	43.7	4.7	5.1	49.6	6.6	50.4	5.8
부동산, 임대	1.5	67.3	0.9	32.7	1.2	2.7	82.3	0.7	17.7	1.8
전문, 과학, 기술	5.9	58.5	5.5	41.5	5.7	9.6	64.0	6.8	36.0	8.4
사업시설, 사업지원	2.5	47.3	3.6	52.7	3.0	2.9	41.0	5.3	59.0	4.0
예술, 스포츠, 여가	2.0	54.8	2.2	45.2	2.1	3.3	59.7	2.9	40.3	3.1
협회, 수리, 개인	4.6	62.0	3.7	38.0	4.2	3.8	54.3	4.0	45.7	3.9
행정, 국방, 사회보장	6.3	66.9	4.1	33.1	5.3	4.2	67.8	2.5	32.2	3.5
교육서비스	4.1	24.4	16.6	75.6	9.6	2.7	18.7	14.6	81.3	7.9
보건 및 사회복지	3.1	17.3	19.4	82.7	10.2	3.6	23.5	14.7	76.5	8.5
기타	1.6	64.0	1.1	36.0	1.4	1.0	37.0	2.2	63.1	1.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3. 서울의 청년취업자 평균 임금은 239만 원, 남성이 여성보다 50만 원 더 벌어

- 서울의 청년취업자 월평균 임금은 239.4만 원이며, 남성(261.8만 원)이 여성(211.6만 원)보다 50.2만 원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 200.2만 원, 전문대졸이 213.4만 원, 대졸 이상이 271.9만 원으로 학력이 올라갈수록 월평균 임금도 증가
- 서울 청년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간의 임금 차이가 심한 것으로 분석됨
 -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이 253.1만 원으로 가장 큰 반면, 임시직은 185.5만 원, 일용직은 89.6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일용직은 대부분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

〈표 23〉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성별, 학력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남자	여자	전체
성별		261.8	211.6	239.4
학력별	고졸	219.5	176.9	200.2
	전문대졸	224.5	203.7	213.4
	대졸 이상	293.7	238.7	271.9

주 무응답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표 24〉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

		임금	비중
임금근로자		239.4	92.3
	상용직	253.1	81.1
	임시직	185.5	9.9
	일용직	89.6	1.3

주 무응답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 서울 청년취업자가 월평균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은 금융·보험업(318.9만 원)
- 월평균 임금이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318.9만 원), 부동산·임대(284.7만 원), 제조업(268.6만 원), 건설업(268.5만 원), 출판·영상·정보(251.4만 원) 순
 - 월평균 임금이 적은 산업은 교육서비스(193.3만 원), 협회·수리·개인(200.4만 원), 행정·국방·사회보장(207.6만 원), 사업시설·사업지원(209.3만 원) 순

〈표 25〉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

	임금	취업자 수 비중
제조업	268.6	21.8
건설업	268.5	4.0
운수업	239.1	2.5
출판,영상,정보	251.4	6.1
금융, 보험	318.9	4.7
도매 및 소매	235.3	13.4
숙박 및 음식점업	214.4	4.7
부동산, 임대	284.7	1.2
전문,과학,기술	242.1	5.7
사업시설,사업지원	209.3	3.0
예술,스포츠,여가	232.9	2.1
협회,수리,개인	200.4	4.2
행정,국방,사회보장	207.6	5.3
교육서비스	193.3	9.6
보건 및 사회복지	212.1	10.2

주 기타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4. 청년취업자, 미취업자, 학생의 구직활동 특징

- 이미 취업한 취업자들은 대부분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 정보를 취득했던 반면, 미취업자들은 취업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직 정보 취득경로 1순위는 ‘민간 취업사이트·카페(18.0%)’라는 응답이 전체적으로는 높았으나, 취업자들은 주로 ‘친구 또는 선후배(21.0%)’, 미취업자들은 ‘민간 취업사이트·카페(26.8%)’, 학생들은 ‘학교선생님(교수)·지인(31.1%)’에서 구직 정보를 취득하는 등 정보 취득 경로가 서로 상이함
- 이미 취업한 취업자들은 수입이나 보수에 대한 불만족이 애로사항인 반면, 미취업자나 학생들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잘 몰라서 구직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취업자들은 구직 활동 시 어려운 점 1순위로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27.4%)’를 꼽았고, 미취업자들과 학생들은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각각 37.4%, 47.0%)’라고 응답해 미취업자나 학생들이 취업정보 부족으로 구직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26〉 서울시 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구직 시 정보 취득 경로

(단위: %)

	학교 선생님 (교수, 지인)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경력개발센터 등	신문, TV 등 언론매체	생활 정보지 (취업자, 미취업자)	부모 또는 친척	친구 또는 선후배	사설취업 알선기관
학생	31.1	19.5	4.0	0.0	0.0	5.3	3.0
취업자	14.9	1.4	1.1	1.4	9.1	21.0	3.7
미취업자	8.2	9.2	3.8	2.7	0.0	12.5	6.0
전체	16.7	5.5	1.9	1.4	6.3	17.3	3.9
	공공기관 취업사이트 (워크넷 등)	민간 취업사이트/ 카페 등	회사에 직접연락	학원	현장실습/ 인턴십	헤드헌터 (서치 컨설턴트)	기타
학생	15.1	10.5	9.3	1.2	1.0	0.0	0.0
취업자	13.9	18.0	8.9	2.5	0.6	1.7	1.9
미취업자	15.3	26.8	6.6	0.0	0.0	2.0	7.0
전체	14.3	18.0	8.6	1.9	0.6	1.5	2.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표 27〉 서울시 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구직 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경력이 부족해서	성차별 때문에	학력, 기능 등 요구자격이 맞지 않아서
학생	47.0	12.2	13.0	0.8	12.1
취업자	19.7	10.1	15.9	0.0	5.2
미취업자	37.4	12.3	14.1	2.1	11.6
전체	26.5	10.7	15.2	0.4	7.2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서류/면접 시험의 지속적인 탈락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자격증이 없어서	기타
학생	4.5	4.9	4.3	1.2	0.0
취업자	27.4	10.1	4.2	1.8	5.6
미취업자	4.7	7.6	9.0	0.0	1.2
전체	20.6	8.9	4.9	1.4	4.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 취업자들은 학생이나 미취업자들보다 스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펙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취업자 비중이 스펙을 준비한 취업자 비중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됨
 - 취업자들은 ‘업무관련 자격증(3.15점)’, ‘학벌(3.07점)’, ‘학점(2.83점)’ 등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으로 봄
 - 취업을 위해 준비한 스펙은 업무관련 위주로 ‘업무관련 자격증(30.0%)’,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28.8%)’, ‘학점(25.1%)’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학생이나 미취업자들에 비해 매우 낮음
- 미취업자들은 ‘학벌’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펙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취업을 위해 ‘학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업무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취업자들은 ‘학벌(3.62점)’, ‘업무관련 자격증(3.53점)’, ‘영어회화 능력(3.45점)’ 등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으로 보았으며, 취업을

위해 '학점(41.9%)', '컴퓨터 관련 자격증(35.7%)', '업무관련 자격증(34.1%)' 등을 준비하고 있음

〈표 28〉 서울시 학생, 취업자, 미취업자가 생각하는 스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점)

	학벌	학점	토익·토플 등 공인영어 성적	영어회화 능력	제2외국어 능력	한자능력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학생	3.83	3.72	3.70	3.68	2.98	2.50	3.21
취업자	3.07	2.83	2.67	2.65	2.41	2.15	2.82
미취업자	3.62	3.31	3.35	3.45	2.81	2.41	3.13
전체	3.27	3.04	2.93	2.93	2.55	2.24	2.93
	업무 관련 자격증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	인턴·아르 바이트 등 직무경험	공모전 등 수상경력	석·박사 학위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 활동
학생	3.85	3.32	3.48	3.06	3.06	2.75	2.64
취업자	3.15	2.40	2.78	2.28	2.24	2.19	2.13
미취업자	3.53	2.77	3.16	2.71	2.77	2.48	2.49
전체	3.31	2.60	2.95	2.46	2.44	2.32	2.2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 학생들은 모든 유형의 스펙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현재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학점', '공인 영어성적'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생들은 '업무관련 자격증(3.85점)', '학벌(3.83점)', '학점(3.72점)' 등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펙으로 보았고, 취업을 위해 '학점(67.1%)', '토익·토플 등 공인영어성적(60.6%)', '영어회화 능력(43.0%)' 등을 준비하고 있음